

11월 전교학생자치회의

11월 전교학생자치회의가 11월 26일 화요일 8시 20분 학생자치회실에서 열렸다. 12명의 학생이 출석했으며 3가지 안건을 토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12월 학생자치회 나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었다. 추운 겨울날씨를 생각해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자는 의견이 나와 12월 5일 목요일 등교시간에 학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학생자치회실에서 필요한 물건과 관련한 안건으로 학생자치회 구성원들이 모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추가로 구입하는 의견이 결의되었다.

마지막 안건은 학생자치회실 관리문제에 관한 안건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먼저 학생자치회의실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학생자치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반 동아리 학생들에게 당부하자고 결의하였다.

언어의 향연 교내 독서 토론 대회

11월 29일 솔내음 도서관에서는 합리적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 및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내 독서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정 도서는 거짓말과 진실을 다룬 거짓말 학교로 '선의·공익의 거짓말은 필요하다.'는 논제로 진행하였다.

그동안 갈고닦은 언어 논리가 돋보인 6학년 2반 이 OO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 참여한 6학년 오OO군은 '독서토론 대회에 참여해 보니 입론서를 작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차 질의식 독서 토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애학생성교육

11월 28일 목요일 1교시에 통합지원반에서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전 시간에 이어 그림책과 연계한 성교육을 진행하였다. '도와주세요, 빨래할머니'라는 책에는 성폭력과 관

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사례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사례의 주인공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례와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더 모색해 보고 생활 속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함께 읽고 성장해요.' - 책과 노니는 맘

솔내음 도서관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을 읽고 정착하는 문화를 위하여 매달 어머님들과 함께 아동도서 한 권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책과 노니는 맘] 동아리를 운영한다.



회원들은 책을 읽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비경쟁식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을 하면서 회원들은 책 속에 나오는 삶을 간접경험하고 인물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해 간다. [책과 노니는 맘]에서는 주로 아동 도서를 선정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다.

[책과 노니는 맘]은 가정과 학교,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학습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아리 회원 가입은 매년 3월 초에 신청을 받는다.